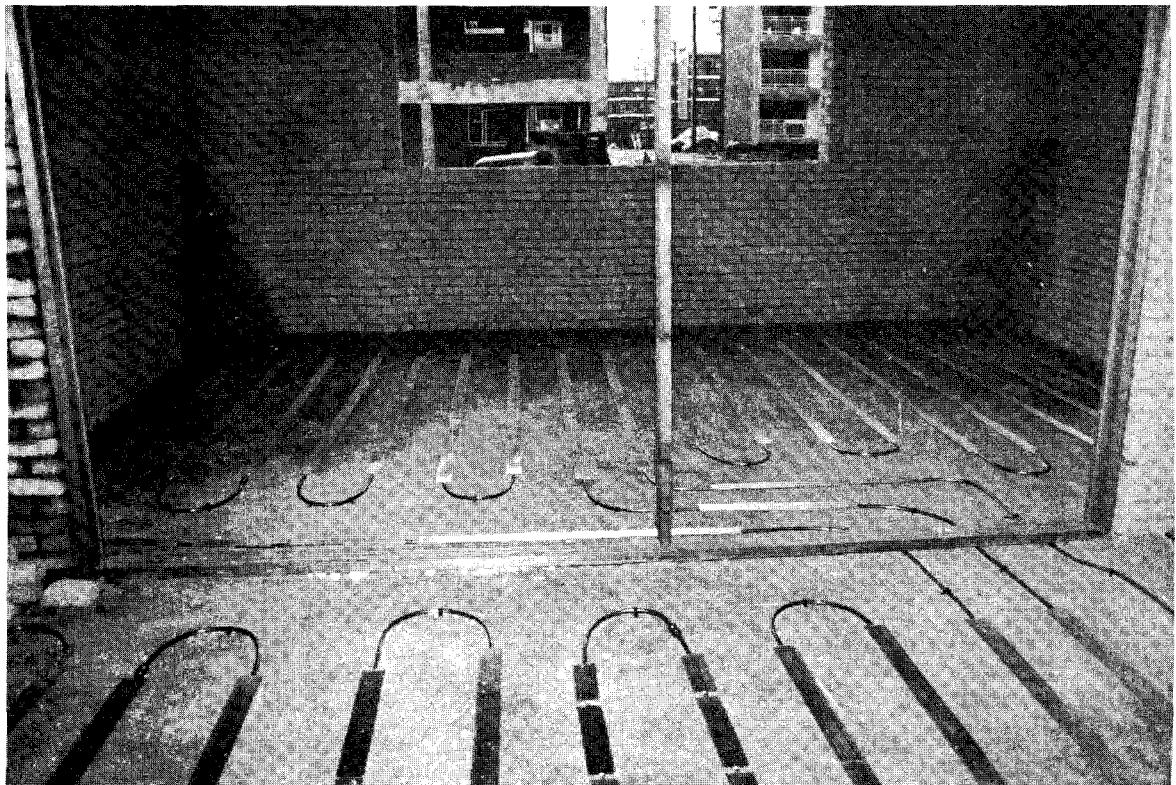


인기 훈련직종에 밀리는 온돌공과



우리나라에 직업훈련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도 18년이 되었으며 직업훈련제도의 사업을 위한 국민의 인식부족, 제도의 불비, 재원의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기능인력의 양성측면에서 확고한 사회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의 훈련실태와 외국직업훈련 현황 그리고 향후 온돌공과의 추이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설립 으로 조직화된 인재양성 기반 마련

우리나라는 부존자원과 내자(內資)의 부족, 인구과잉으로 인하여 노동력은 풍부하되, 그 노동력을 쓸모있는 기능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1981년 12월 한국직업훈련공단법을 공시하여 수많은 인적자원을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자원화시키기 위해 1982년 3월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을 설립, 기능·기술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모토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이제 명실공히 기술, 기능인력 양성의 산실이기도 하다.

직업훈련의 실시와 기술자격검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직업훈련과 기술자격검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복지 증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 아래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훈련교사의 양성 및 관리,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검정자 등록, 관리 및 보수교육, 국내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직업훈련원의 형태

우리나라 전국직업훈련기관은 299개소이며 그중 직업훈련관리공단은 전국 37개소로 각 산업별 공통 수요직종으로서 사업내 훈련이 어려운 직종(금형, 기계공작, 용접등), 수출전략직종(보석가공, 염색,

제작등)에 대한 훈련,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면허훈련, 기능장 양성 부분인 공공훈련분야를 맡고 있으며 민간분야인 기업체내의 사내직업훈련이라든가, 민간부분의 인정직업훈련, 재직자 자체 능력배양을 위한 정부기관, 영농직종 및 농가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등이 있다.

기능계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기능장은

- ① 기능사 1급 자격, 기능대학 졸업,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자(기능대학 교육 기간은 합산)
- ② 기능사 1급 자격, 7년 이상의 실무 종사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야만 하고 기능사 1급은
- ③ 동일 직무분야기능사 2급, 3년 이상의 실무(동일 직무분야 전공 실고 졸업자는 2년)
- ④ 동일 직무분야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다른 직무분야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실무)
- 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기능 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 ⑥ 고등학교 졸업, 4년 이상의 실무 경험 있는자
- ⑦ 기능사 1급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수예정자야만 한다. 그러나 기능사 2급 및 보는

자격 제한 없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7연패 위업달성

제2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7연패를 기록 기능 및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인상을 심었으며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

산업현장 무명용사들의 큰 승리로 한국을 산업보국의 나라로, 기능부강의 나라로 이끄는 이들이 바로 직업훈련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다.

우승을 차지하기까지는 관계기업이나 학계에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소산이며 출전한 기능인들의 각고의 노력결과로 볼 수 있다.

훈련생에 대한 특전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산업분야의 직업에 처음 종사하고자 하는자, 또는 이미 취업한 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관련지식 바람직한 직업습관 및 태도, 환경에의 적응능력 인성을 개발시키는 훈련, 또는 산업현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생중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의 5%, 생활보호대상자는 정원의 30% 범위에서 선발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 및 식비를 지급하며 훈련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실습비, 실습복, 교재, 검정수수료 등) 전원기숙사 입사 및 기숙사를 무료로

심층취재

제공한다.

훈련기간중 징집 일부연기 및 예비군 훈련을 일부 보류시켜주며 수료가 끝나면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를 해주는데 수료후 자영이나, 군입대를 제외하면 100% 취업이 가능하며 훈련생들의 실력은 기업체에서 인정을 해준다.

인기훈련직종에 밀리는 건축시공과

기능인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속에서 선반, 기계, 용접, 전기분야가 인기종목으로 대두되자 훈련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쪽으로 몰리며 비인기분야 건축은 갖은 특혜에도 마다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렇듯 건축시공과에 지원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국 33개 직업훈련원중 건축시공과가 있는 훈련원은 8개소로 경기직업훈련원(온돌), 충북직업훈련원(건축목공),

충남직업훈련원(건축목공), 전북직업훈련원(온돌), 전남직업훈련원(조적, 건축목공), 경북직업훈련원(온돌), 제주직업훈련원(건축목공)이 있으며 1년과정인 기능사 2급과 6개월과정 기능사 보를 훈련하고 있다.

건축시공과에는 목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주택, 공장 등 건축물의 목구조물을 제작, 보수, 수리를 하고 철근콘크리트로 거푸집제작, 설치 및 건물의 내·외부를 목재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시키는 건축목공과, 조적용 공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을 일반주택, 공장, 빌딩 등 각종 건축물의 벽, 기둥의 구조물을 쌓거나 건물의 기초를 만들고 각종 건축물의 보수,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시키는 조적과, 미장용장비 및 수공구를 사용하여 건물의 내·외벽, 천장, 바닥에 각종 미장재료를 발라 장식적인 마무리 및 수리,

보수작업을 하고 주택 등 각종 건물의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시공방법으로 온돌을 축조하고,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시키는 미장(온돌)과가 있다.

온돌과 건축의 견인차

직업훈련소 즉 건축시공과를 실시하는 훈련소에서는 온돌공과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교육으로 온돌공을 배출하고 있다. 연소통, 연소장치, 벽돌, 구들장, 파이프 및 시멘트 등의 온돌재료를 사용하여 각종 온돌을 건축구조에 알맞고 최선의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시공 방법을 활용, 구들온돌 및 구멍탄용 온수온돌을 축조, 시공하는 기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온돌공은 단독, 공동 또는 대소간 모든 형태의 주거시설중 구들 및 구멍탄용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요하는 축조물내에서 연소, 연소장치, 구들장, 파이프 및 모르타르 등 온돌재료를 사용, 적절한 형식의 온돌을 건축구조에 알맞고 최고의 열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축조하고, 개수,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미장, 조적, 배관 등의 다기능이 요구되며 그 수행작업대상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독작업을 수행시키기도 한다.

한사람의 미숙련공 훈련생이 사회로 진출하여 숙련된 온돌공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온돌시공을 위한 시방서의 작성 및 적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공계획수립, 도면작성



인기훈련직종에 밀리는 온돌공과

빛 제시도면을 읽을 수 있으며 온돌시공용공구, 재료 장비를 적절히 선택,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면에 의하여 설치물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 기초 공사를 독자적으로 수행, 공사 계획에 따른 제반공정을 정확하게 적절한 시공방법으로 구들온돌을 단독 축조하게 하고, 구명탄용 온수온돌을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온돌시공을 위한 미장, 조적, 배관 등 관련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마감작업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며 기존온돌을 안전하게 개조·보수하며 구들 및 구명탄용 온수온돌의 결합진단과 시험을 하며 온돌관계법령 및 안전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이상의 모든 기능을 배양시키는 것이 훈련소의 교육 목표이다.

온돌기능공이 될 수 있는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1천8백시간으로 이론과 실기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상의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한가지씩 자격증을 가지며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각 지방 직업안정과에 취업을 의뢰하거나 자영을 하게 된다.

온돌기능사의 향후 추이

온돌분야는 업무영역이 좀 기 때문(구명탄으로 한정)에 직업훈련생의 직업선택 선호도가 낮으며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노동부는 각 산업 분야의 기능직

(표 1) 미장(온돌포함) 직업훈련을 위한 실기교과

교과목	교과개요 및 교수요목	배당시간
(총시간) 기본실기	1) 공구사용법 ○활류 사용하기 ○절삭기 사용하기 ○절단기 사용하기 ○나사내기 및 조립하기 ○흙갈 및 흙손 사용하기 ○수평수직기 사용하기 ○자대 및 각도재기 2) 이음판 및 방열판 설치 ○이음판 제작하기 ○관구부리기 ○방열판 설치하기(1, 2, 3, 4, 5) 3) 보일러 설치 ○보일러 설치(상향식) (1, 2, 3, 4, 5) ○보일러 설치(하향식) (1, 2, 3, 4, 5) 4) 기초작업 ○고래바닥 만들기 ○개자리뚝 만들기 ○구들장 설치 ○아궁이 설치 ○유도목 설치 ○굴뚝 설치 ○고정식 아궁이 설치 ○이동식 아궁이 설치 ○기준점 표시와 벽금봉기 ○바탕조사와 손실 ○바닥 수평잡기 ○기둥 수직잡기 ○스램수평 각잡기 ○기초수평 구배잡기 ○창호수평수직 각·구배잡기(1, 2) 5) 온돌작업 ○온돌작업하기(1, 2, 3, 4, 5)	[1,200] 350 50 58 73 132 37

종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관리하여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하려면 우선 온돌공과의 업무능력을 확대하며, 가정난방 부분은 온돌기능사자격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바침이 있다면 온돌공과의 많은 훈련생은 물론 일반검정

시험에도 응시를 하고자 지원이 많을 것이다.

현행 가정난방 시공에 대한 건축법은 온수온돌시공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그 시공자격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온돌기능사는 구명탄용 온수온돌

심층취재

〈표 2〉 미장(온돌포함) 직업훈련을 위한 이론교과

교과목	교과개요 및 교수요목	배당시간
온돌공학	1) 온돌의 개념 및 재료 ○온돌의 배경 및 분류 ○온돌과 보온 및 방수 ○시멘트몰탈 및 조적용재료 ○단열보온재료	(100) 15
	2) 열의 기초이론 ○구명탄의 성분 및 연소 ○열의 이동 및 이용 ○자연대류 및 공기의 조화	10
	3) 구들온돌의 개요 ○구성요소 및 구성재료 ○구조 및 시공범위	10
	4) 결합 및 대책 ○부엌의 결합 및 대책 ○굴뚝의 결합 및 대책 ○구조적인 결합 및 대책 ○시험 및 검사	5
	5) 온수온돌의 개요 ○구성요소 및 구성재료 ○연소율의 이용 ○온수의 순환 및 유속촉진 ○보일러의 용량 및 난방능력 ○구조 및 보일러의 선택	30
	6) 온수온돌시공 ○시공용공구와 기계 사용하기 ○배관기초 및 배관설치 ○보일러, 방열판 설치하기 ○부속장치연결 및 굴뚝시공 ○시험 및 검사	20
	7) 작업안전 ○산업안전관계 법규	10

시공으로 한정되어 있다.

건설부는 이법을 온돌기능사가 온수온돌 시공을 전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바침 하여야 할것이며 동력지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최소한 가정난방이라도 한종목 기능사가 연료가 무엇이 되었든 열발생장치(보일러설치) 열이용장치(온돌), 배연장치(굴뚝)을 할 수 있다면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기여함은 물론

기능인력 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온돌인 스스로도 제도적 보장이라는 것이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벽돌을 한장 한장 쌓아서 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처럼 인내를 가져야 할것이다. 지름길로 간다고 하는 생각, 모로가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 급히 먹는 밥이 체하듯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

들은 결국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니 시간이다소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생각, 정당한 절차, 정당한 방법으로 이룩해야만 할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으로 제도적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

앉아서 누군가 해주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온돌인 스스로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온돌기능사들이 모여 단종 면허를 취득해 국가적으로 인정도 받으며 서로 신뢰감을 조성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각 지방의 온돌 기능공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개별난방단이라도 온돌시공은 온돌자격자가 할 수 있도록 요구이전 단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블루칼라가 화이트 칼라에 밀려 천시반던 시대도 있었으나 학력편중의 우대 사회로부터 기능인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기술위주의 선진사회를 선배 온돌인 들이 새시대 장을 열어 온돌을 한 분류의 직종이라는 동등의식 보다 구시대 유물적 “쟁”이라는 의식이 앞서 기피하는 좁은세대를 포용, 훌륭한 기능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며, 온돌인 각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으로 직업에 대한 목표와 나의 분야에서는 나 이상 없다는, 최고의 권위자,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국 직업훈련소중 온돌공

인기훈련직종에 밀리는 온돌공과

과를 훈련하는 8개소는 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던것을 농민교육원이 '88년 1월 이관되면서부터이다.

농민 교육원 인수 배경 및 개선방안

1971년 농촌직업훈련소를 설립한후 '82년 농민교육원으로 통합 각도에 1개소씩 전체 9개소로 건설, 목재가공, 전기, 섬유등 훈련종목으로 운영, 훈련직종이 미장, 온돌, 목공동 새마을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종 위주로서 농촌공업화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직종의 취약, 시설 및 실습장비는 적정수준에 절대미달하여, 기존 장비도 노후화되어 전면적인 시정대책이 불가피했다. 훈련교사의 절대부족 및 우수교사 확보도 곤란, 지방비의 제약으로 시설확충 및 교육내실화 기대가 곤란, 전문직업훈련을 지방행정조직체계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직업훈련체계가 이원화되어 훈련생 확보, 교육, 취업알선등의 어려움이 잇따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노동부산하 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9개소중 8개는 이관 되었으며 진주 농민교육원은 도, 직업훈련소로 남아 있다.

제약된 지방재정으로 인한 농민교육원 취약한 훈련기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기존 직업훈련원의 교사, 교재, 축적된 정보등으로 기존체제

를 활용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농촌공업화를 위한 인력 배출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개선방안으로 전력투구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돌분야의 인력양성 계획으로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 시설 및 장비를 보강, 농민교육원 당시 장비 보유율이 공단의 20% 수준이었던 것을 3년에 걸쳐 공단 수준으로 보강 계획을 수립, 보완해 가고 있으며, 종전에는 주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했으나 '89년도 부터는 1년과정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온돌기능공의 기능공난이 심화되어 제대로 시공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한다.

이런 실정에 그나마 직업훈련소에서 온돌기능공을 양성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람이 잠을 자고 안식을 얻

는 주택의 심장부인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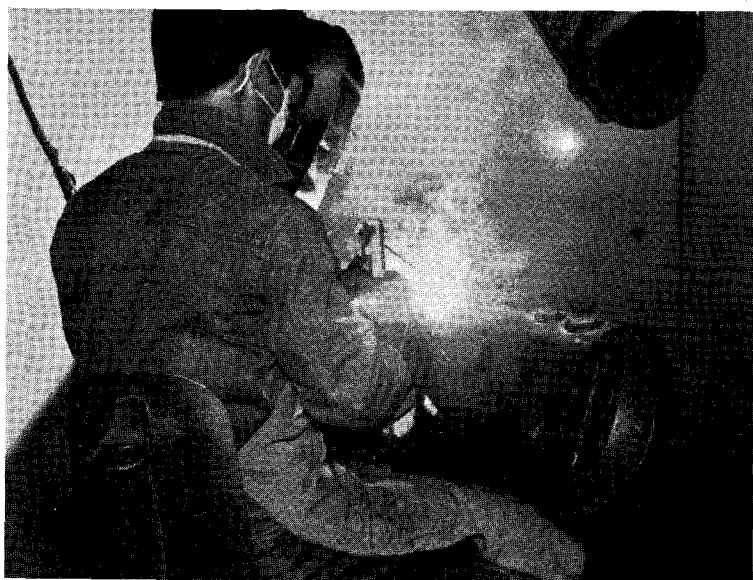
진정 온돌인이라면 나 자신이 창출하는 난방기법에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서양 입식난방 문화에 밀려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 문화의 온돌.

이제는 고석(古昔)에 머무른 온돌을 현대 주거난방에 맞도록 구성하여 세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찬란한 고유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능인의 산실, 직업훈련원의 온돌공과의 훈련생에게 그 기대를 걸어 봄직하다.

덴마아크의 직업훈련제도

덴마아크 직업훈련 학교의 발달은 직물 생산업을 발달시키고자 왕이 유럽의 여러나라로부터 장인을 데려왔던 16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여러 세기동안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이 계속 부족하



심층취재

였지만 오랫동안 기능인들은 기술을 연마해왔으며, 숙련 기능공들에 의해 발달된 도제제도는 도제로서 짚은이나 어린 이를 받아들여 훈련시켰다.

1800년경에 이미 기술대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곳에서 가르쳐진 것은 모국어와 산수와 같은 초등학교 수준의 과목이었다.

덴마아크의 현행 직업훈련 제도는 아래와 같다.

① 도제기간이 시작되기 전, 도제의 계약은 고용자와 훈련생간은 물론 그의 부모 혹은 보호자간에 성립된다. 계약은 계약상의 승인을 위해 노동이 사회에서 설정한 일정한 지침에 따라 성립되며, 노동위원회에 계약서 사본 한장을 제출한다.

② 훈련생은 일정한 기간내에 기술대학의 1년차 과정에 참여한다. 수업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되며, 훈련은 매주 총 40시간이다. 1년차 과정 및 그 후속과정의 수업은 실습장에서의 실습교육과 이론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1년차 과정이 끝나기 전에 주기능장은 문제의 기술교육에 있어서 훈련생들의 적성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④라고 쓰여진 기간의 첫 번째 달은 어떠한 재정적인 영향력 없이 양쪽의 단체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시험기간이다. 시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더욱 엄격한 규칙이 도제기간의 종결을 위해 적용된다.

④, ⑥, ⑧, ⑩ 도제기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이들 기간 동안(약 3년 4개월) 훈련생은 고용주의 기업체나 혹은 실습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도제는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고용주 또한 훈련규칙에 규정된 과목을 포함하여 만족할 만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⑤, ⑦, ⑨ 기술대학에서의 2년차 및 3년차 과정이 6주를 소요하는 반면, 4년차 과정에서는 3주일을 소요한다. 교육프로그램(교과과정)은 작업장에서의 실제훈련과 대학에서의 이론수업으로 구성되며, 교과과정에 따라 훈련장소 및 대학의 훈련시설 등에 관한 세부 명세서가 결정된다. 4년차 과정에서의 교육은 이전의 과정에서 망라된 교과과정의 요약 반복이라 할 수 있다.

⑩ 자격 시험은 제4년차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하에 이루어지는데, 시험의 내용과 범위는 시험규정이나 시험위원회

에 의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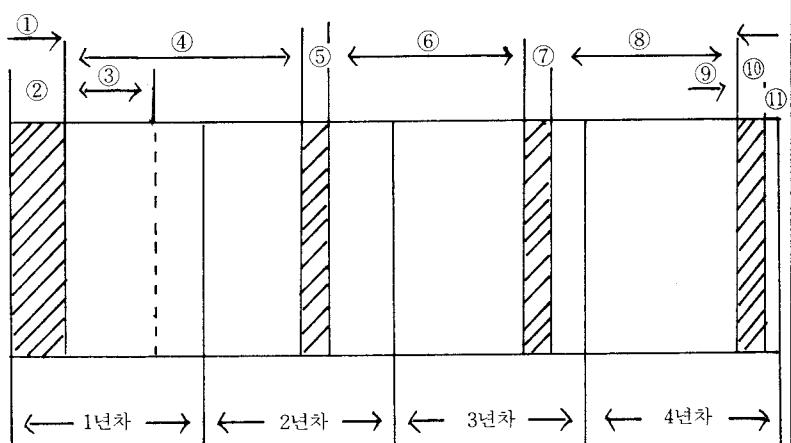
11 도제기간이 완료되면 도제졸업증서가 수여된다. 직공이 그 기간을 마쳤을 때 그는 특정한 직업에서 숙련된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충분히 숙련된 근로자는 그가 자격을 얻은 후 도제기간을 마친 곳에서 근무할 의무는 없다.

교육제도가 아무리 홀륭하다 할지라도 국가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반면 교육제도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수가지 도구중의 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덴마아크·교육제도는 이러한 도구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며, 이는 특히 보충훈련과 추가훈련은 물론 기초 훈련에 해당된다.

청소년 실업문제와 소위 말하는 잉여그룹의 감소는 우선 순위 리스트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 기대된다. 직업훈

<그림 1> 도제계약에서 자격시험까지의 과정



련은 이에 대해 기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책은 몇년 내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벨기에의 직업훈련제도

유럽을 비롯하여 근대화된 모든 국가가 그러하였듯이 벨기에에서도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설립된 공장이나 대규모 생산단위에는 점차 복잡한 기능을 갖춘 수많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모여들었으며 이로 인해 벨기에는 1세기 전부터 근로자의 직업훈련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업훈련은 이미 오래전에 폴란다스와 유클리아의 대도시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고, 큰 영향을 미친 상인 길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직장과 직인들이 도제들을 위해 만든 직무훈련이 직업훈련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에 첫발을 내디딘 어린 근로자에게 특별한 직업훈련을 시킬 필요성을 느낀 것이 대기업의 고용주와 중견 기술자들 이었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기술 및 직업훈련이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되거나, 고용주로 부터 굴욕적인 훈련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더 나은 취업준비를 시키고자 하는 계급투쟁의 이론을 채택한 투쟁적 사회주의 지역단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호황기에도 전 노동력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업훈련, 향상훈련 및 재훈련과정을 받고 있다면 그 것은 그나라의 경제가 건전하

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2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전 노동력의 2%인 8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따라서 벨기에는 불황의 기운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벨기에의 직업훈련이 사회보장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직업훈련제도

일반적으로 모든 유럽국가의 직업훈련 연혁을 보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 1950년대 초기로서 전후 재건기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단계이며, 제2단계는 1960년대 초기로서 1959년도에 발족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를 계기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현실적인 노동정책과 훈련간에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학교교육과 훈련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성인 훈련제도를 구체화시킨 단계이다.

제3단계는 1970년대로서 1기와 2기에 걸쳐 발전한 기초 위에 더욱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혁신적인 기반(학교 졸업후의 청년층 취업을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을 구축한 시기이다.

이탈리아는 제2단계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직업훈련사업에서 대상그룹은 중등하급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이나 사정으로 인해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등상급

학교를 중퇴한 청년층,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 훈련계약을 맺은 청소년 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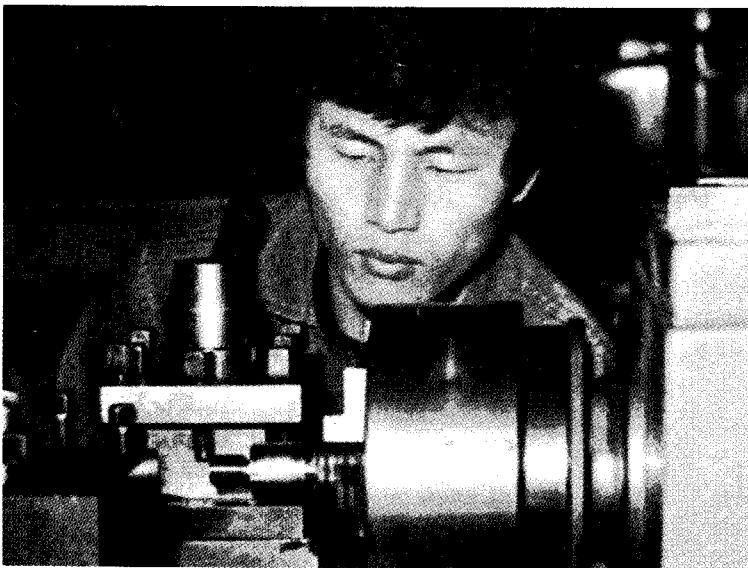
직업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교재,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방관서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며 일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기업체에 취업할 때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있는 한 자기가 원하는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취업될 수 없으며, 또한 취업시켜서도 안된다.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사회단체는 형식적으로만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전통적으로 특정한 청소년 중심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어 노동정책과 부합되지 않아 직업훈련 발전에 장애를 주고 있다.

이와같은 요인들은 직업훈련 발전의 저해는 물론 때로는 내부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일례로 과히 중요하지도 않은 교사훈련이나, 훈련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느냐 민간단체가 주도하느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방관서와 노동부간에 상당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직업훈련제도

아일랜드에서의 최초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농업부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838년에 더블린 근처에 교육농장이 설립되어 장차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부나 관리인 또는 식



민지 개척자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체는 실시 가능한 자체내의 노동력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일랜드의 정부 정책이다.

건축과 건설분야의 고용은 사기업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기계 및 건설기능공은 먼저 기계 및 건설분야의 산업에 고용되고 그 다음으로 제조산업에 고용되고 있다. 새로운 도제제도는 2차산업 기능훈련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아일랜드 경제는 높은 실업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업훈련제도의 기능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제도로의 변화

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의 결과를 훈련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직업훈련제도

룩셈부르크의 직업훈련은 남부의 대규모 철광산업이 현실화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교육제도에서도 이러한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의 전환이 반영되었다.

룩셈부르크의 직업훈련에서 특기할 점은 대부분의 직업훈련이 현장에서의 적용기간을 거쳐서 시험된 후 법제화 되었다는 점이다.

룩셈부르크 기능인학교 1896. 3. 14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직업길드에 의해 구성된 코스들을 몇년동안 시험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육목표는 「기능인 희망자 즉, 학생에게 자유작업장에서 체계적

이고 충실한 도제가 되기 위한 기술적, 예술적 지식 및 실제의 기능을 보유하도록 해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높은 기능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 양면에 걸친 전일제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1958. 8. 3 법을 통하여 기능인학교는 기능·공업학교로 되었으며 세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공예(가구공예, 농공예, 연철공예, 도장, 장식, 조각) 공업(건축, 기계, 전기, 공구) 미술·장식예술등 교육기간은 2~4년이며, 학생은 최종시험을 거쳐 졸업하게 된다.

룩셈부르크의 공공교육은 무상이며, 교육비는 정부나 시정부가 부담한다.

사업내 훈련은 기업이 부담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의 정부보조비가 따른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도제는 도제기간 동안 기업체에서 도제수당을 지급받으며 직업훈련 재정은 문교부의 예산에서 충당되며, 이 예산은 예산법에 의하여 매년 정해진다.

대만의 직업훈련

대만은 내정부조직법 제7조에 의하여 직업훈련국은 직업훈련, 기능검정 및 취업보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수차에 걸쳐 실시한 경제건설 계획은 공업의 신속한 발전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직업훈련을 중시하게 되었다.

대만의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은 10여년간 걸쳐 발전해 왔으므로 이미 기초기반은 조성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규모가 잘 갖추어진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은 10여 개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는 모두 각기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각각 다른 필요와 목표에 의하여 설치되어 책임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과 기능검정 및 취업지도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블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를 중시하는 고정관념 즉, 기술 기능천시 풍조가 아직 뿐만 아니라 때문에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의 직업교육훈련

일본의 직업교육제도의 기원은 1883년에 재정된 농학교 통칙과 이듬해 1884년에 제정된 상업학교 통칙에 유래한다. 그 뒤 산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이 요청되어, 1894년에는 실업학교령이 제정되어 실업학교 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계속한 배경에는 우수한 기능근로자의 존재가 크게 이바지한 것인데, 이 사실은 반대로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자의 양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업고교 졸업 정도의 기능자의 현저한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그 수효의 증가는 물론 공업분야의 교원양성이 꾀하여졌다.

건축학과 수업과목은 건축구조, 구조설계, 건축계획, 건축설계제도, 건축환경공학, 건축생산, 건축사 등이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앞으로 고령자의 소득보장 문제와 삶의 보람의 문제, 그리고 젊은 근로자의 상대적 부족문제 등이 중요해질 것이다.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기의 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잘 대처하여 온 이유 중 하나가 적응력이 높은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였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앞으로는 젊은 노동력의 감소, 고령화의 진전 등 공급구조의 변화에 대처한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유효한 직업능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교

육훈련 시스템 개발등 창의성이 요구된다.

직업훈련은 그 내용이나 대상자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능력재개발훈련으로 대별된다. 이를 훈련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것과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것을 준칙훈련이라 한다. 그 훈련기준, 즉 훈련과정의 구분, 교과, 설비, 기타기준은 노동성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이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직업훈련으로써 직업훈련지도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직업훈련법상에서는 이 중에서 직업훈련대학교에서 실시되는 것과, 인정을 받아서 사업주등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도훈련이라 규정하고 있다.

〈최미련 기자〉

